

“유능한 민주당” 슬로건 민생 챙기기 주력... ‘9월 영장’ 변수

이재명 대표 1년...대선패배 5개월만에 압도적 지지로 지휘봉 잡아 검찰 장기 수사 리스크... ‘영장 청구’ 결과따라 총선 앞 정치지형 급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내달 정기국회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대표 리더십’이 막중한 상황에서 임기의 반쯤에 선 것이다. 특히,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등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음 달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전체 총선 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거야(거야) 지휘봉을 잡았다. 무려 78%에 육박하는 압도적 정당대표 득표율이었다. 취임 화두는 ‘재집권’이었고, 방법론으로 ‘민생’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유능한 대안정당’ 슬로건을 앞세워 틈만 나면 전국을 돌며 ‘민생 경쟁투어’를 했다.

그러나 이재명표 ‘민생 드라이브’가 아이레스건인 ‘사법 리스크’ 탓에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검찰의 소환 조사 등 압박은 계속됐고 여권의 ‘방탄 정당’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당내 고질병인 계파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무더기 이탈 표’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빨(개혁의 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진영의 대립은 확산되는 흐름이다. 아울러 ‘2021년 전 당대회 돈 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논란’, ‘김은경 혁신위 논란’ 등 거들된 악재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31%였던 당 지

지율은, 약 1년 만인 지난 14~16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23%로 내려앉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권의 각종 악재가 민주당의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이 대표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방탄 논란 등 계파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높다.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주도권 확보에 나설 시기에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년 총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 대표는 당내 입지 회복은 물론, 사법 리스크 탈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면서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이 결정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상당한 내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가 구속된다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같은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개인 비리라는 점에서 폭발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의 실정과 야권의 무능에 깊은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호남 민심이 이 대표의 거취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거취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불 밑에 잠복하고 있는 호남 민심의 역동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거취 문제는 내년 총선 공천 불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 호남지역 총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 의무화

조오섭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의원이 27일 ‘주차장 전기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일어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건(36%)에 달한다. 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양평고속도로·잼버리 사태’ 송곳 검증 예고

30일~9월4일 결산안 심사...대통령 집무실 이전비 등 문제 제기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 비용 등에 대한 야당의 철저한 검증이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결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부처별 결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으로 국민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고 있다”며 “부실한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반복, 졸속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제 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 재정 운용에서 조차 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됐다”며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무능·실책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의 대규모 불용 ▲이전용 납용 및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제도 개선 필요 사업 ▲재난 안전 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 5대 분야로 나눠 총 168개 정점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역점 사업 중 민생을 위해 필요하지만 정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으며, 전액 불용된 경향공포함 사업, 실 집행률이 60%대에 그친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한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

축 사업과 고용 창출 장려금 사업 등을 사례로 꼽았다.

집행 내역이 불투명한 법무부-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역 사당 상품권 지급 사업, 임대 주택 입주 대상 요건 완화 정책 등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에서 이월액이 크게 발생한 점에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교육 정책 혼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풍수해, 무분별하게 집행된 특수활동비 등 9건에 대해서 심사 결과 부실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세수 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6건, 경향공포함 불용 및 뉴딜펀드 소극 운용 등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양향자 신당 ‘한국의 희망’ 오늘 출범

국회서 중앙당 창당대회

화순 출신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신당 ‘한국의 희망’이 28일 공식 출범한다.

27일 한국의 희망 창당준비위는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창당대회에선 주요 당직자 소개와 창당 선언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희망은 광주와 전남, 전북, 서울, 경기 등지에 지역당을 꾸렸고 창당에 필요한 당원도 모두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은 대한민국이 ‘선도 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와 함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양 의원은 지난 6월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건너가겠다”고 했다.

한국의 희망 10대 공약으로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한 정당 활동, 상시 정치학교 도입, 협치의 제도화, 상생과 존중의 노사관계 등을 내세웠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교통광장)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광양시 광양읍 북성리 856-4번지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도로, 교통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광양시청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8일
광 양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나. 도로 변경(변경) 조서

구분	종류	구호	면적(㎡)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계지	최초결정일	비고
가형	중로	1	1	20	보조2선 도로	919	51호광장	대안1~4호	일반도로	전남 119호 (86.07.09)	
변형	중로	1	1	20	보조2선 도로	919	51호광장	대안1~4호	일반도로	전남 119호 (86.07.09)	
가형	중로	1	71	20	보조2선 도로	274	2호광장	51호광장	일반도로	전남 119호 (86.07.09)	
변형	중로	1	71	20	보조2선 도로	274	2호광장	51호광장	일반도로	경정도	전남 119호 (86.07.09)
가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00	51호광장	소로1~1호	일반도로	전남 119호 (86.07.09)	
변형	소로	1	5	10	국지도로	91	51호광장	소로1~1호	일반도로	전남 119호 (86.07.09)	
가형	소로	2	24	8	국지도로	507	중로1~71호	소로1~12호	일반도로	전남 119호 (86.07.09)	
변형	소로	2	24	8	국지도로	507	중로1~71호	소로1~12호	일반도로	전남 119호 (86.07.09)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도호부	변경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 신항변경	• 제1호 교통광장(신항)지구(사)지구 내 신항(광양) 결정(변경)안 및 현행도로 불일치 하는 구역에 대하여 현행도로에 맞춰 신항변경	
중로1-71	• 신항변경	• 제1호 교통광장(신항)지구(사)지구 내 신항(광양) 결정(변경)안 및 현행도로 불일치 하는 구역에 대하여 현행도로에 맞춰 신항변경	
소로1-5	• 노선변경 및 신항변경 - L = 100m → 91m(±9m)	• 제1호 교통광장(신항)지구(사)지구 내 신항(광양) 결정(변경)안 및 현행도로 불일치 하는 구역에 대하여 현행도로에 맞춰 신항변경	
소로2-24	• 신항변경	• 제1호 교통광장(신항)지구(사)지구 내 신항(광양) 결정(변경)안 및 현행도로 불일치 하는 구역에 대하여 현행도로에 맞춰 신항변경	

나.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상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변경	51	광양51	교통광장	광양읍 북성리 861-3	6,785	승02	7,287	02.12.13	광양읍 원도상권

• 광장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1	교통광장	• 면적57기 - 6,785㎡ → 7,287㎡ (증 502㎡)	• 제1호 교통광장 내 교차시설의 원활한 교통차량을 위해 구조개선(회전교차로)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교통광장 면적변경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3. 8. 28 ~ 9. 11.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광양시청 도시과
다. 관계도서 : 세계광역(광양)시정 도시과(비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061-797-3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 임대 안내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위치한 땅끝농협 농기계서비스센터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고자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바랍니다.

임대시설 개요

- 주 소 : 전남 해남군 송지면 달마로 19(미야리 219-10)
- 면 적 : 건물(369㎡), 대지(2,584㎡)
- 임대시설물 : 목축물 내 건물 및 기계·공구·비품 일체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임대료 : 상호 협의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상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신용정보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농기계수리 서비스업 경영자 우대
- 제출서류 : 신분증, 자격증사본,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방법 : 땅끝농협 총무계로 직접 방문 신청

문의사항

- 땅끝농협 총무계로 문의
(전남 해남군 송지면 산정1길 80, ☎ 061-533-2470)

땅끝농업협동조합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품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성 최고!
-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출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